

## 『삼국유사』의 삼국 ‘全盛時期 戶口’ 기사 검토

An article examination on ‘The number of houses and families in the heyday’ of the Three Kingdoms in 『Samguk-Yusa』

---

저자 (Authors)	조상현 Cho Sang-Hyun
출처 (Source)	<a href="#">한국고대사연구 56</a> , 2009.12, 399-440 (42 pages) <a href="#">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56</a> , 2009.12, 399-440 (42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고대사학회</a> Society for Korean Ancient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31666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316668</a>
APA Style	조상현 (2009). 『삼국유사』의 삼국 ‘全盛時期 戶口’ 기사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56, 399-44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19 11:2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삼국유사』의 삼국 ‘全盛時期 戶口’ 기사 검토

조상현\*

- I. 머리말
- II. 고구려 · 변한백제 · 진한조의 기술 의도
- III. ‘전성시기 호구’ 기사의 재해석
- IV. 호구 정보 추론에 대한 적합성
  1. 호구 정보의 생성 요건과 시간 범주
  2. 호구 정보의 적합성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고대의 인구를 추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용되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가운데 『삼국유사』의 기록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고대 인구사 연구 경향이 주로 두 사서 가운데 한 가지 자료만을 선

\*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수료

대표논문: 2003 「고구려 ‘遊人’의 성격 검토」 『韓國古代史研究』32; 2006 「高句麗의 人口에 대한 시론」 『歷史學研究』28

택하여 논지를 펼쳤던 것에 반해, 필자는 두 자료를 공히 이용하여 고대 인구를 살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에서는 『삼국유사』 고구려·변한백제·진한조 등 삼국 관련 조목의 구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조목의 내용이 사실상 국가의 기원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음과 세 조목이 거의 흡사한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III장에서는 삼국의 전성시기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는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전성시기가 흔히 삼국의 마지막 단계인 최전성기 혹은 멸망기라 불리는 시기와는 다르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다만 진한조의 ‘全盛時期 京中’이라는 구절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는데, 고구려조와 변한백제조의 문장 구조와 동일한 방식대로 ‘신라 전성기에 17만 8936호가 있었다. 수도에는 1360방 ~’의 순서로 해석하여 호구수의 공간적 범위를 ‘경중’이 아닌 신라 전체의 범위로 인식하였다.

IV장에서는 『삼국유사』 전성시기 호구 정보의 작성 시기를 추정하였는데, 역사서의 편찬과 율령의 반포 그리고 불교의 전파를 중요 기준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신라는 6세기 무렵의 정보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필자는 비교적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고구려를 통해 추정이 합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았는데, 『삼국지』와 기타 사료의 편린 속에서 찾아지는 4세기 고구려의 호구는 대략 17만 호 정도였으며, 이는 『삼국유사』의 21만여 호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삼국유사』의 21만여 호 정보가 4세기 고구려의 호구라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멸망기의 69만여 호 역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었다.

주제어 : 『삼국유사』, 『삼국지』, 진한조, 삼국, 호구, 인구, 삼국 전성시기

## I. 머리말

한국 고대의 戶口·人口를 추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이용되는 기록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

구려는 멸망 당시 69만여 戶, 백제는 멸망 당시 76만 戶로 되어 있다.<sup>1)</sup> 반면 『삼국유사』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호한 ‘全盛’ 시기의 호구를 기록하고 있는데 高句麗條에는 고구려 전성기에 21만 508戶, 卞韓百濟條에는 백제 전성기에 15만 2,300戶, 辰韓條에는 신라 전성기 首都에 17만 8,936戶라고 되어 있다. 이외에 제3의 자료로 충남 부여 定林寺址五層石塔에 새겨진 소위 「大唐平百濟國碑銘」이 있는데, 여기에는 백제 멸망 당시 24만 戶, 620만 口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수치를 보이는 세 자료는 한국 고대 호구·인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큰 편차를 보이는 자료들을 펼쳐두고 자신의 논지에 맞는 것을 擇一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것을 신뢰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고대 인구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그 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당평백제국비명」의 경우 620만 口라는 지나치다 싶은 인구수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인용되는 예가 드물고,<sup>2)</sup> 대부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1) 중국 측의 『구당서』에는 ‘69만 7천 호’, 『신당서』에는 ‘69만 호’로 『삼국사기』의 ‘69만여 호’와 거의 비슷하게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이후 『삼국유사』의 고구려 ‘21만여 호’ 기록과 대비되는 ‘69만 호’의 기록은 『삼국사기』를 대표로 거론하기로 한다. 백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74만 호’를 대표하는 기록으로 『삼국사기』를 거론한다.

2) 金起燮(1997 「4세기경 百濟의 人口와 住民構成」 『京畿史論』創刊號, pp.12~19)은 백제의 인구를 620만 口라고 한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대신 24만 호라는 호구 정보는 타당한 수준이라 하여 이를 수용해 백제 인구 추정을 시도한 바 있다. 李丙燾(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p.427)의 경우 24만 호를 74만 호의 오기라고 보기도 하였다. 朴南守(2004 「三國의 經濟와 交易活動」 『新羅文化』24, p.14)는 비문이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한 공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과장된 수치를 적었다고 보고 있다.

기존의 한국 고대 인구사 연구에서는 통설적으로 『삼국사기』의 기록을 수용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인구를 파악하고 있다.<sup>3)</sup> 반면 『삼국사기』의 호구수가 너무 많다하여 戶를 口의 誤記로 보기도 하고,<sup>4)</sup> 『삼국유사』 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sup>5)</sup>

필자는 앞서 「高句麗의 人口에 대한 시론」을 통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고구려 69만여 호’ 기록이 신빙성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sup>6)</sup> 하지만 이후 『삼국유사』의 호구 관련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문제의식의 시작이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삼국유사』의 기록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여러 번역본들의 해석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대부분의 『삼국유사』 번역과 주석은 전성시기 호구 기사에 대해 大同小異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물론 번역본의 경우 주로 원문의 해석에 치중하다 보니 아무래도 본격적인 의문 제시나 언급을 기대하긴 힘들다.

3) 李丙燾, 1984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신형식, 2003 『高句麗史』,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孫進己, 2004 「東北亞 각국의 高句麗 土地·人民·文化에 대한 繼承」 『北方史論叢』 창간호.

4) 李玉, 1984 『高句麗 民族形成과 社會』, 教保文庫.

尹鍾周, 1985 「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少考」 『韓國人口學會誌』 8-2.

馬大正·楊保隆·李大龍·勸赫秀·華立 공저, 2001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書』, 黑龍江教育出版社.

朴南守, 2004 앞의 논문.

5) 李玉, 1997 「高句麗의 人口」 『京畿史論』 創刊號.

이옥·주용립·지병목 공저, 2000 『고구려연구』, 주류성.

6) 조상현, 2006 「高句麗의 人口에 대한 시론」 『歷史學研究』 28.

〈표 1〉 각종 『삼국유사』 번역본의 전성기 관련 기사 해석 내용

	고구려조	변한백제조	진한조
리상호(과학원출판사, 1960)	삼국사기와 다름	신구당서와 다름	×
이병도(대양서적, 1972)	삼국사기와 다름. 근거 불명확	삼국사기와 다름. 근거 불명확	×
三品彰英(각서방, 1975)	전성기가 언제인지 불명확	삼국사기와 전혀 별개 계통 자료	전성시기 의문. 현강왕대로 추정
이민수(을유문화사, 1983)	삼국사기와 다름	신구당서와 다름	×
김봉두(교문사, 1995)	삼국사기와 다름. 전성기 불분명	신구당서와 다름. 본문 숫자 의문	×
김원중(을유문화사, 2002)	별망시 숫자와 비교했을 때 의심	백제 서술이 매우 소략. 남부여·전백제·북부여조와 함께 살펴야 함	고순기가 ‘戶’를 ‘口’로 해석한 견해에 동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회문화사, 2003)	통계 미상, 삼국사기와 차이	삼국사기와 차이. 출처 의문	현강왕대. 이병도의 ‘호’를 ‘구’로 보는 견해 소개
이범교(민족사, 2005)	융성하던 때가 언제인지 불분명	어디서 인용한 것인지 불분명	현강왕대로 추정

그렇다면 기타 연구 성과들 가운데 『삼국유사』의 전성기 및 호구 정보와 관련된 언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중국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일찍부터 고구려 연구를 해온 孫進己 등은 고구려 인구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의 기록을 주로 언급하였다.<sup>7)</sup> 최근 들어 高句麗族 문제가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고구려 인구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삼국유사』의 호구 정보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몇 건 보인다. 楊保隆은 『삼국유사』의 호구수가 고구려 전성시대의 高句麗族 숫자만을 기술한 것이라 보고 있고, 耿鐵華와 李德山은 『삼국유사』 고구려 전성기 호구수를 장수왕 시기의 것이라 하였으며, 楊軍은 『삼국유사』의 고구려 전성기 호구수가 北魏 시대 고구려의 인구라고 주장하였다.<sup>8)</sup> 東北工程 초창기 『삼국사기』의 69만 戶를 69만

7) 중국 학자들의 고구려 인구 관련 연구는 『삼국사기』 ‘69만 戶’를 ‘69만 名’으로 해석하는 경우(馬大正·楊保隆·李大龍·勸赫秀·華立 공저, 2001 앞의 책)와, ‘69만 戶’를 인정하는 대신 각 종족별 구성 비율을 따지는 연구 경향(孫進己, 2004 앞의 논문; 耿鐵華 지음, 朴倉培 번역, 2004 「고구려 유민에 대한 당나라의 관리」 『중국인이 쓴 高句麗史』上, 고구려연구재단) 등으로 나뉜다.

8) 중국의 고구려 인구 관련 연구 성과는 정병준(2008 「고구려 유민 연구」 『중국학

구의 誤記로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69만 호를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가능하면 여러 이유를 들어 고구려 혹은 고구려족의 인구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삼국유사』의 기록이 종종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오장환은 『삼국유사』의 호구수를 인정하는 대신 1호당 인구를 신라 촌락문서의 평균치인 10명가량으로 보아, 삼국의 인구를 500만 명이라고 하였다.<sup>9)</sup> 정찬영은 『삼국유사』의 호구를 고구려나 백제의 전통적인 대가족공동체의 호구 편제로 파악하였다.<sup>10)</sup> 채희국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5세기 후반기라고 하고, 『삼국유사』의 호구 정보를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직접 지배했던 호구수로 추정하였다.<sup>11)</sup>

국내의 경우 김창석은 고구려 전성기를 장수왕대에서 멸망의 중간 시기로, 백제의 경우에는 사비천도 이후를 가리킨다고 보았다.<sup>12)</sup> 박남수는 당나라와의 전쟁 전후시기가 고구려 전성시기 일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백제 전성시기의 경우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무령왕 때와 신라 서변 40여성을 공파하였던 의자왕 15년 무렵까지로 추정하고 있다.<sup>13)</sup> 윤종주는 『삼국유사』의 전성기 호구 정보를 고구려는 장수왕대, 백제는 성왕대로 비정하였다.<sup>14)</sup> 이옥은 1984년에 발표한 글에서 『삼국사기』의 戶數를 口數로 바

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72~75)의 논문을 참조

- 9) 오장환, 1958 「신라장적에서 본 9세기 전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형편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력사과학』5, p.70.
- 10) 정찬영, 1989 「고구려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대하여」 『삼국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 일송정, p.211.
- 11) 채희국, 1989 「삼국 시기의 사회 -경제 구성을 해명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삼국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 일송정, pp.272~273.
- 12) 김창석, 1997 「7세기 신라에 의한 경제통합과 토지제도 개편」 『역사와 현실』23, pp.55~59.
- 13) 朴南守, 2004 앞의 논문, p.17.

꿔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으나,<sup>15)</sup> 이후 발표된 논문에서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삼국유사』의 호구수가 가장 타당한 수치라고 기존 견해를 수정하였다. 이옥은 전성기를 멸망기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sup>16)</sup> 전덕재는 경주의 한 坊에 대략 150~270인이 거주했다는 김교년의 견해를 참고하여,<sup>17)</sup> 신라 하대 王京의 1,360坊에는 204,000~367,000명가량이 거주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각 坊의 인구밀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17만 9천 명, 즉 『삼국유사』의 戶를 口로 보았을 때와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고 하였다.<sup>18)</sup>

이상 『삼국유사』의 전성기 호구 정보와 관련된 번역 및 기존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고대 호구와 관련해서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나오게 된 이유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다. 첫째, 『삼국사기』의 기록은 당나라에 의해 멸망될 당시의 기록임이 명확하여 그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삼국유사』의 기록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전성’ 시기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 어느 시기의 정보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적절한 인구수가 어느 수준이냐는 개인적 판단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서 일제강점시기의 조사내역과 조선시대의 호구 정보를 염두에 두고 연구자 스스로 고대 호구·인구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판단을 미리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객관적 자료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라면, 후자는 주관적 판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과연 『삼국사기』

14) 尹鍾周, 1985 앞의 논문, p.6.

15) 李玉, 1984 앞의 책, p.17.

16) 李玉, 1997 앞의 논문, pp.1~6.

17) 김교년, 2003 「신라 왕경의 발굴조사와 성과」 『신라왕경조사의 성과와 의의 - 문화재연구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12,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8) 전덕재, 2009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p.157.

와 『삼국유사』의 호구 정보는 병존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 나가는 작업을 해나가고자 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먼저 『삼국유사』 고구려·변한백제·진한조의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세 조목의 구성이 갖는 특이점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 일연이 이 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전성시기 호구 정보 기사의 재해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특히 경주의 호구 정보로 알려져 큰 혼란을 던져 준 진한조의 기사를 검토하고 문장을 재구성해 보겠다. 진한조의 기사가 왕경의 호구 정보가 아니라 고구려·변한백제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정보일 가능성을 제기할 것이다. 일련의 기사에 대한 재해석과 내포 의미에 대하여 검토한 후, 추론의 타당성 여부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점검할 것이다.

다만 호구와 관련된 자료가 극히 드물고 또한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계로 이 연구는 필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 한국 고대 호구·인구 추정을 위한 하나의 假說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소박하게나마 이 글을 통해 고대 호구 및 인구 관련 연구에 있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두 사료에 대한 접근의 폭이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 Ⅱ. 고구려·변한백제·진한조의 기술 의도

이 장에서는 『삼국유사』의 삼국 관련 조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서 일연의 삼국 관련 역사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구려조의 구조를 살펴보자.

### A. 『삼국유사』 권1, 기이, 高句麗

A-1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이다. 혹 말하길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 등이

라고 하나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의 경계에 있다.

A-2 『국사』 고려본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中略) (『단군기』에는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친하여 아들을 낳으니 부루라고 이름했다’ 고 했다. 지금 이 기록을 살펴보면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사사로이 정을 통한 후 주몽을 낳았다고 했다. 『단군기』에는 ‘아들을 낳아 부루라고 했다’ 했으니 부루와 주몽은 배다른 형제이다, 부모님은 제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서,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라고 했다. 금와가 이상히 여겨 그녀를 방 속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속으로 비쳐, 그녀가 몸을 피하면 햇빛은 다시 쫓아와 비쳤다. 이로 인해 태기가 있어 알 한 개를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 정도였다. (中略) 졸본현(현도군과의 경계지역)에 이르러 도움을 정했으나 미처 궁실을 세울 겨를이 없어 비류수 위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이로 인하여 고를 성으로 삼았다.(본성은 해씨이다. 지금 스스로 천제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햇빛을 받고 태어났다고 하여 고로서 성을 삼았다) 이때 나이 12세로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에 즉위하여 왕이라 칭하였다.

A-3 고구려의 전성기[全盛之日]에 21만 508호였다.

A-4 『주립전』 제21권에 이렇게 실려 있다. “옛날 영품리왕의 여종이 임신했는데, 관상을 보는 자가 점을 쳐서 말하기를, ‘임신한 아이는 귀하게 되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고 하자. 왕이 말하기를 ‘내 아들이 아니니 마땅히 죽어야 한다’ 고 했다” (中略) (이는 동명제가 졸본부여의 왕이 된 것을 말한 것이다. 이 졸본부여는 역시 북부여의 다른 도읍이므로 부여왕이라고 한 것이다. 영품리는 곧 부루왕의 다른 호칭이다)

A의 고구려조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뉜다. A-1은 고구려가 졸본부여라는 사실과 졸본의 위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부분이다. 이는 고구려조의 앞에 등장하는 북부여조 마지막 부분의 “동명제가 북부여를 계승하여 일어나 졸본주에 도읍을 세우고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곧 고구려의 시조였다(見下; 아래에 보인다)”는 기사에 연결되는 것이다.

A-2의 경우 중간에 『단군기』를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삼국사기』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sup>19)</sup> 『삼국사기』의 내용을 군데군데 간략히 요약한 점과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때의 나이가 22세가 아닌 12세로 되어 있다는 점을 빼고는 주몽의 탄생 신화와 고구려의 건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부분의 대부분을 『삼국사기』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

다음 A-3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서술 구조상으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인용한 문장의 뒤에 붙어 있으나, 『삼국사기』에서 이 부분은 찾아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뒤에 나오는 『주립전』에서 인용한 것도 아니다. 일연은 『삼국유사』를 서술함에 있어 자신의 의견과 인용된 자료를 구분하고, 주석을 달아 두는 등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sup>20)</sup> 이와는 정반대로 자신이 인용한 자료에 대해 아무런 전거도 밝히지 않은 예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자료의 신빙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sup>21)</sup> A-3의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A-4에 등장하는 『주립전』은 불교 관련 백과사전인 『法苑珠林』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연이 고구려의 건국 사실 서술에 불교 사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삽입한 것은 주몽에 의한 고구려 건국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종교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고구려조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A-4는 A-2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A-2와 A-4는 하

19)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1, 시조 동명성왕

20) 金相鉉, 1993 「三國遺事의 歷史方法論的 考察」 『東洋學』23, p.174.

21) 金相鉉, 2003 「三國遺事論」 『강좌 한국고대사』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263.

나의 구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조는 A-1 역사지리, A-2/A-4 건국이야기, A-3 호구정보의 틀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변한백제조의 구조를 살펴보자.

B. 『삼국유사』 권1, 기이, 卞韓百濟(亦云南扶餘 卽泗泚城也)<sup>22)</sup>

B-1 신라시조 혁거세가 즉위한지 19년 되는 임오에 변한 사람들이 나라를 바치고 항복했다. 『신당서』, 『구당서』에는 모두 “변한의 후손들이 낙랑땅에 있었다” 했고, 『후한서』에는 “변한은 남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으며 진한은 동쪽에 있다”고 했다. 최치원은 “변한이 바로 백제다”라고 했다. 「본기」를 살펴보면 온조가 일어날 때가 흥가 4년 갑진이니, 즉 혁거세와 동명왕의 시대보다 40여 년 뒤의 일이다. 그런데 『당서』에 변한의 후손들이 낙랑땅에 있었다고 한 것은 온조왕의 계통이 동명왕에게서 나온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혹자가 “낙랑에서 나와 변한에 나라를 세우고 마한 등과 대치한 적이 있었다”고 한 것은 온조 이전에 있었을 뿐이지, 그 도읍을 정한 곳이 낙랑 북쪽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혹자가 구룡산을 잘못 알고 변나산으로 불렀던 까닭에 고구려를 변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개 잘못일 것이다. 마땅히 옛날 현인의 말이 옳다. 백제의 땅에 원래 변산이 있었기 때문에 변한이라 하는 것이다.

B-2 백제의 전성기[全盛之時]에 15만 2,300호였다.

22) 제목에 붙는 분주는 『삼국유사』 내에 서로 연관된 조목이 앞이나 뒤에 나오는 경우, 이를 고려하거나 지시하기 위한 장치이다(李康來, 2005(a) 『『삼국유사』의 사서적 성격』 『韓國古代史研究』40, pp.321~322). 여기에서는 뒤에 등장하는 남부여전백제조의 존재를 의식하여 분주한 것일 뿐, 이 조목에 남부여나 사비성 관련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다.

B의 변한백제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B-1은 『신·구당서』 및 『후한서』, 『삼국사기』 백제본기 등을 인용하여 변한이 곧 백제라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 곳곳에 신라 말 대문호인 최치원을 古賢 내지 古德이라고 칭하면서 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있는데,<sup>23)</sup> 그 중 하나가 바로 마한은 고구려, 변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라고 보는 견해이다.<sup>24)</sup> 즉 변한백제조라는 제목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 내용은 최치원의 이야기를 인용해 변한이 백제라는 것을 고증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역사서라면 웅당 있어야 할 백제라는 국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빠져있다. 이처럼 변한에 대한 논증으로만 이루어진 곳에 바로 B-2의 내용이 첨가되고 백제 관련 조목이 마무리되고 있다. B-2의 경우도 B-1에서 인용한 사서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출처미상의 내용이다. 변한백제조는 B-1 ‘변한=백제’ 고증, B-2 호구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한조의 구조를 살펴보자.

### C. 『삼국유사』 권1, 기이, 辰韓(亦作秦韓)

C-1 『후한서』에서 말하기를, “진한의 늙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길, ‘진나라에서 망명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자 마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떼

23) 박진태·정호완·이동근·김복순·이강욱·조수동 공저, 2002 『『삼국유사』의 편찬의도』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pp.83~84 ; 金炳坤, 2005 『崔致遠의 三韓觀에 대한 認識과 評價』 『韓國古代史研究』40, pp.234~238.

24) 일연은 ‘마한조’의 ‘최치원이 말하길, ‘마한은 고구려요, 진한은 신라다’ 고 하였다”라는 기록과 ‘변한백제조’에서 “옛날 현인의 말이 옳다. 백제의 땅에 원래 변산이 있었기 때문에 변한이라 하는 것이다”라는 두 기록을 통해 최치원의 견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이강래, 2005(b) 『『삼국유사』 기이편의 자료 수용 방식』 『『삼국유사』 기이편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pp.56~57).

어 그들에게 주었다. 서로 부르기를 徒라고 하는데, 진나라 말과 비슷함이 있다. 그래서 혹 秦韓이라고 했다. 12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각 1만여 호로 저마다 나라라고 칭하였다.”

C-2 또 최치원이 말하기를, “진한은 본래 연나라 사람이 피난 온 곳으로, 이런 까닭에 탁수의 이름을 따서 그 읍과 마을을 사도·점도로 고 불렀다.”(신라 사람들의 방언에 涿의 음을 道로 발음하였다. 때문에 사랑이라고 쓰고 梁을 또한 道로 읽는다)

C-3 신라 전성기[新羅全盛之時] 왕경[京中]에 17만 8936호가 있었다.

C-4 (왕경에) 1천 3백 60방, 35리, 35개의 금입택(부유한 큰 집을 말한다)이 있었다. 이는 남택, (중략) 등 이다.

C-5 <又四節遊宅><sup>25)</sup> 봄에는 동아택, 여름에는 곡량택, 가을에는 구지택, 겨울에는 가이택이다.

C-6 제49대 현강왕 때 성 안에 초가집이 하나도 없고, 집의 처마가 맞붙고 담장이 이어져 있었으며, 노래와 피리소리가 길에 가득 차서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

C-1은 『후한서』를 인용한 문장으로 중국 秦나라에서 망명 온 사람들에 의해 신라가 건국되었다는 기사이며, C-2는 최치원의 견해인 ‘진한이 신라’라는 사실만 고증하고 있다. C-3은 신라 전성기 왕경의 호구에 대한 정보이고, 이어 등장하는 C-4는 신라 전성기의 왕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즉 C-3~4는 신라 왕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삼국유사』에는 C-5가 분절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C-4와 연결

25) ‘又四節遊宅’ 조는 별도의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又’의 존재나 내용의 연관성 등으로 보았을 때 별도로 나누기보다 앞선 辰韓條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단 진한조와 우사절유택조를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신라 왕경과 연결된 구성으로 보고 있다. C-6은 앞서 나온 왕경과 전성기 내용을 보충설명하기 위해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데, 『삼국유사』 처용랑망해사조의 내용<sup>26)</sup>과 『삼국사기』 현강왕 6년 기사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sup>27)</sup> 진한조 구성은 C-1~2 진한과 신라 연관성, C-3 전성기 수도의 호구 정보, C-4~6 경주에 대한 보충 설명 등 크게 3부분으로 대별된다.

이상 살펴본 A~C 사료의 구성을 다시 정리해 보면 고구려조는 역사 지리-건국이야기-호구정보, 변한백제조는 ‘변한=백제’ 고증/호구정보, 진한조는 ‘진한=신라’ 고증/호구 정보/수도설명 등의 틀을 갖추고 있다. 이를 보면 삼국 전성시기의 호구 정보가 등장하고 있다는 공통점과 함께,<sup>28)</sup> 다른 사서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던 신라 관련 호구 정보가 등장

26) “제49대 현강대왕 때에는 서울[京師]에서 지방[海內]까지 집이 촘촘하고 담장이 이어져 있으며,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 길에서 풍악과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도 사시사철 순조로웠다”(『삼국유사』 권2, 기이, 처용랑망해사).

27) “9월 9일에 왕이 좌우의 신하들과 함께 월상루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수도의 민가들이 즐비하고 노래와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왕이 시중 민공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듣기로 지금 민간에서는 집을 기와로 덮고 띠뿔로 지붕을 이지 않는다 하고, 밥을 솥으로 짓고 나무를 쓰지 않는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였다. 민공이 대답하기를 ‘저 역시 일찍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 하고, 이어 아뢰기를 ‘주상께서 왕위에 오르신 이래로 음양이 조화롭고 비바람이 순조로워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변경 지역은 잠잠하고 도시에서는 기쁘게 즐기니, 이는 전하의 어진 덕이 불러들인 바이옵니다’ 라고 하였다”(『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현강왕 6년).

28) 이와 관련하여 일연이 국가의 강역 문제보다 인구 관련 문제를 더 중시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鄭求福, 1987 앞의 논문, p.14 ; 김성수, 2004 「高句麗와 古朝鮮의 正體性 확인을 위한 『三國遺事』 紀異篇의 書誌的 分析」 『書誌學研究』 29, p.235).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한편 위 조목들의 내용을 보면 의아한 점이 발견된다. 『삼국유사』 기이편을 일종의 역사서라고 보았을 때, 각 국가 혹은 정치세력 관련 조목에 건국부터 멸망까지의 전체 역사가 기술되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삼국유사』의 경우 많은 조목에서 이러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적시하지 않은 예외적인 부분은 A~C 이외에도 마한·2부·72국·남대방·이서국·5가야·북부여조 등이 있다. 『삼국유사』의 이러한 경향은 마치 여러 기록들 속에서 독립된 정치세력으로 보이는 것을 전부 모아 단순 진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sup>29)</sup> 그럼 일연이 내용이 충실치 않은 조목들을 단순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로 분량이나 비중 면에서 매우 떨어진다고 보임에도 몇몇 조목을 단독으로 편성한 것은 일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사의 체계를 갖추기 위함이요,<sup>30)</sup> 왕조별 서술의 질량과는 상관없이 삼국 중심의 역사 전개를 구성하려는 일연의 의도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sup>3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선조와 위만조선조에서는 나름대로 一國의 역사적 사실을 통찰하고 있음에 유념한다면, 삼국 관련 조목의 완성되지 못한 체제는 짙은 아쉬움을 남긴다. 신라의 역사는 진한조의 바로 뒤에 나오는 신라시조혁거세왕조와 이후 기이편 중·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라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름대로 보충이 된다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는 친절하고 공정한 배치 구도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일연이 소위 ‘三國의 遺事’를 표방하면서 이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국유사』의 구성이 연대순과 내용상의

29) 李基白, 1984 「三國遺事 紀異篇의 考察」 『新羅文化』1, pp.18~20.

30) 金杜珍, 2000 「三國遺事の 體制와 내용」 『韓國學論叢』23, pp.7~8.

31) 이강래, 2005(b) 앞의 논문, p.92.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라면,<sup>32)</sup> 일연이 의도하였던 삼국 관련 역사의 배치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고구려사의 경우 ‘마한·북부여·동부여 → 고구려 → 태종춘추공’의 순으로 흥망성쇠를 배치하였는데, 마한~동부여를 고구려조 앞에 편성함으로써 고구려의 국가 건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사의 경우에는 ‘변한백제 → 남부여전백제 → 무왕 → 태종춘추공’의 순으로 흥망성쇠를 배치하였다고 하겠다. 일연은 고구려·백제의 7세기 전쟁 및 패망 관련 사실을 공히 태종춘추공조를 통해 소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삼국유사』 기이편 삼국 관련 조목의 배치와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았는데, 고구려·변한백제·진한조는 사실상 국가의 기원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전성시기 호구’ 기사의 재해석

전성시기 호구 정보 기사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중국사서와 『삼국사기』에 보이는 멸망기 호구 관련 기사의 정보 제공 방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D-1 (고구려)	高麗國舊分爲五部	有城百七十六	戶六十九萬七千 <sup>33)</sup>
D-2 (고구려)	收凡五部	百七十六城	戶六十九萬 <sup>34)</sup>
D-3 (고구려)	分五部	百七十六城	六十九萬餘戶 <sup>35)</sup>

32) 鄭求福, 1987 앞의 논문, p.14.

33)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동이 고려

34)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

35)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下

D-4 (백제)	其國舊分爲五部	統郡三十七	城二百	戶七十六萬 <sup>36)</sup>
D-5 (백제)	平其國五部	三十七郡	二百城	戶七十六萬 <sup>37)</sup>
D-6 (백제)	國本有五部	三十七郡	二百城	七十六萬戶 <sup>38)</sup>
D-7 (백제)	舊有五部	分統三十七郡	二百城	七十六萬戶 <sup>39)</sup>

D-1~7은 흔히 고구려와 백제의 ‘滅亡期’ 호구 정보라고 일컫는 자료이다. D-1·4의 『구당서』 기사가 멸망기 호구 정보의 원형에 가깝다고 판단되는데, 『신당서』 및 『삼국사기』 등에서는 이를 나름대로 변형하여 실었다. 필자가 생각건대 아마도 원전 자료의 내용은 밑줄을 친 ‘~部(~郡) ~城 ~戶’ 수준이었을 것이며, 이외에 舊·收·本有·平·分統 등의 추가되는 字句는 편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D-1·4는 『구당서』, D-2·5는 『신당서』인데, 동일한 사서 내에서는 자료의 변형 형태가 거의 흡사하다는 특이점이 보인다. 『구당서』의 경우 고구려와 백제 모두 ‘國舊分爲五部’라는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城~’·‘戶~’ 식으로 수치를 뒤쪽에 배치하고 있다. 반면 『신당서』는 ‘收’와 ‘平’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중국이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 즉 동일한 자료를 원전 자료로 사용했음에도 각 사서의 편찬자는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구도의 통일을 꾀하는 동시에 변형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도 기본적인 수치는 거의 동일하지만 다른 부분이 변형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서 잠깐 『삼국유사』 남부여전백제조를 살펴보자.

36) 『구당서』 권199上, 열전149上, 동이 백제

37)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백제

38)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39) 『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백제

## E. 『삼국유사』 권2, 기이, 南扶餘 前百濟(北扶餘 已見上)

부여군은 전백제의 수도인데 혹 소부리군이라고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 성왕 26년 무오 봄에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 했다”하고, 주에는 “그 지명은 소부리다. 사비는 지금의 고성진이다. 소부리는 부여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했다. (中略) “성왕 때 도읍을 사비로 옮기니 지금의 부여군이다. (미추홀은 인주이며, 위례는 지금의 직산이다)” (中略) “26대 성왕 때에 도읍을 소부리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여 31세의 자왕에 이르기까지 120년을 지냈다. 당나라 현경 5년은 의자왕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째 되는 때로, 이때 신라 김유신이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쳐서 평정했다”고 했다. 백제는 본래 5부가 있어 37군 200성 76만 호로 나뉘어 있었다. 당에서 그 땅에 웅진·마한·동명·금련·덕안 등 다섯 도독부를 두고, 그 추장들로 도독부 자사를 삼았는데, 얼마 안 되어 신라가 그 땅 모두를 병합하고 웅주·전주·무주 등 3개 주와 여러 군현을 두었다. (中略) 또 고을 안에는 세 개의 산이 있으니 일산·오산·부산이라 한다. 나라의 전성기 때 [國家全盛之時] 신들이 그 산 위에 살면서 서로 날아 왕래하기를 아침저녁으로 끊이지 않았다. (後略)

‘변한=백제’ 설명에 치중했던 변한백제조와 달리 E는 사비 천도 이후의 ‘남부여’ 시대를 주로 설명하고 있다. 주로 『삼국사기』의 백제지리지 내용을 인용하여 멸망 당시의 호구 정보를 비롯하여 멸망 이후 백제 지역의 변천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사비성 주변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다. 일연이 기이편 전반부에 남부여전백제조를 배치하지 않고 신라의 가장 마지막 왕인 김부대왕조보다 뒤쪽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긴 하지만,<sup>40)</sup> 여하튼 남부여전백제조가 『삼국유사』에서 백제에 대한 역사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바로 이 조목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백제 멸망시 76만 호였다는 정보가 등장하고 있다. 백제의 멸망기

호구 정보는 『삼국유사』 태종춘추공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sup>41)</sup> 이 정보들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및 지리지에 등장하는 백제 멸망기 기사와 동일하다.

일연이 『삼국유사』 편찬에 있어서 삼국과 관련된 근본 사서로 『삼국사기』를 염두에 두고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sup>42)</sup> 분명 멸망기 호구수를 숙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연은 상이한 호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분주를 통한 의문 제기를 하지 않았다. 『삼국유사』라는 하나의 책 안에서 한 곳은 ‘전성시기’에 ‘15만 호’ 가량이라고 하면서, 한 쪽에서는 ‘전성시기로 이해될 만한 시대’에 ‘76만 호’라고 기술한 내용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언뜻 일연의 무성의함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모습은 오히려 변한백제조의 전성시기 호구 정보에 대한 추측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다. 즉 변한백제조의 전성시기 정보와 사비시기의 전성시기-흔히 멸망기라고 일컫는- 정보를 보았을 때 두 시기의 간극이 가깝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그 하나이며, 두 번째로는 일연의 전성시기 인식이 단순히 국가의 마지막 단계인 최전성기를 일컫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몇 가지 전성시기의 용례를 살펴보자.

F-1 그의 문집을 보면 「상태사시중장」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였다. “삼가 듣건대 동해 밖에 세 나라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마한, 변한, 진

40) 남부여전백제·무왕·후백제건원조 등 백제관련 조목이 김부대왕조 뒤쪽에 배치된 것과 관련하여 이기백은 ‘이상하긴 하지만 일연이 종종 비슷한 배열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앞뒤 기사와의 연결성을 생각한 배치’ 일 것으로 보고 있다(李基白, 1984 앞의 논문, pp.21~22).

41) “其國本有 五部 三十七郡 二百城 七十六萬戶”(『삼국유사』 권1, 기이, 태종춘추공).

42) 李康來, 2005(a) 앞의 논문, pp.288~297.

한입니다. 마한은 고려요, 변한은 백제요, 진한은 신라입니다. 고려와 백제의 전성기[高麗百濟全盛之時]에는 강한 군사가 백만이어서 남쪽으로 吳·越을 침범하고 북쪽으로는 幽·燕·齊·魯 지역을 뒤 흔들어 중국의 커다란 두통거리가 되었으며, 수 황제가 허물어진 것도 요동을 친 데 말미암았습니다....”<sup>43)</sup>

F-2 무예에게 말하길, “당은 사람의 많음과 군사의 강함이 우리의 1만 배나 되는데, 하루아침에 원수를 맺는다면 스스로 멸망을 부를 뿐입니다. 지난날 고구려가 전성할 적[昔高麗全盛之時]에 강병 30만으로 당과 맞서서 복종을 하지 않다가 ...”<sup>44)</sup>

F-3 (수)양제가 즉위하여서는 천하가 전성[天下全盛]하여, 고창국의 왕과 돌궐의 계인하한이 친히 (수)대궐에 나아가 貢獻하였다.<sup>45)</sup>

F-4 오직 흑수부만이 강성하여[唯黑水部全盛] (땅을) 16부로 나누고, 또 남부와 북부로 구분하여 일컬었다.<sup>46)</sup>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全盛의 용례는 앞의 A~C 이외에는 F-1이 유일하다. F-1은 최치원의 이야기인데 고구려·백제에 강병이 100만 명이나 있었다는 것,<sup>47)</sup> 중국의 吳·越부터 隋·唐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전쟁을 그치지 않는 것 등 전성시기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삼국사기』 권46, 열전6, 최치원

44) 『구당서』 권199 하, 열전149 하, 북적 발해말갈

45) 『북사』 권94, 열전82, 동이 고구려

46) 『구당서』 권199 하, 열전149 하, 북적 말갈

47) 이 발언은 최치원이 당시 신라와 적대적이던 발해와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李道學, 2005 「崔致遠의 高句麗 認識」 『韓國思想史學』 24, pp.202~220).

다음으로 중국사서의 용례 몇 가지를 살펴보자. F-2는 발해의 입장에서 고구려를 평하는 것으로 당나라에 대적하여 강병을 30만 명이나 동원할 수 있었던 고구려 말기를 전성시기라 부르고 있다. F-3은 수양제의 즉위 후 천하가 전성하여서 주변국의 입벌이 잇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성을 주변국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시절로도 볼 수 있다. F-4는 말갈의 여러 부족 가운데 오직 흑수부만 전성하였다는 기록인데, 그 뒤에 따르는 내용으로 보아 영역의 확대 혹은 지방제도 정비 등을 주요 요소로 삼고 있다. 이 외에 백제 무령왕이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백제가 다시 강성해 졌음을 선포한 것<sup>48)</sup>도 일종의 전성시기로 볼 수 있겠는데, 이 경우 위기에 빠지고 억눌려있던 國勢를 정상화 시킨 것을 스스로 강성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다.

F의 경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누가 봐도 전성시기라고 손꼽을 수 있는 강병을 동원하여 중국과 대규모 전쟁을 하던 시기도 전성시기인 반면, 수도를 함락당한 이후 쇠퇴의 길을 걷는 중에 스스로 강국이 되었다고 부르는 경우도 전성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국가 기틀을 형성한 것 역시 전성시기의 요소로 평가받고 있어 전성시기에 대한 기준이나 계기가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기준으로 전성시기를 규정해 버리려는 시도에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아울러 전술하였듯이 일연의 전성시기 인식이 멸망기를 일컫는 것일 필요도 없고, 이 용어가 단순히 특정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상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다양한 시점, 다양한 스펙트럼이 전성시기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삼국 관련 기사 문구의 통일성을 함께 고

48) “餘隆이 비로소 다시 사신을 파견하여 표문을 올려, 여러 번 고려를 무찌르며 이제 비로소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니,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된 것이다”(『남사』 권79, 열전 69, 이맥 下 백제 ;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무령왕).

려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다시 고구려·변한백제·진한조의 전성시기 호구 정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자.

- ① 高麗全盛之日 二十一萬五百八戶 (고구려조)
- ② 百濟全盛之時 十五萬二千三百戶 (변한백제조)
- ③ 新羅全盛之時 <京中> 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 (진한조)

①과 ②의 경우 ‘日’ 과 ‘時’ 에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두 자료는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③의 경우도 중간의 ‘京中’ 이라는 단어를 제외한다면 앞선 두 사료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흡사한 구조이며 각각의 호구 수치마저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삼국에 있어서 비슷한 성격의 자료를 일연이 취합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①·②와 달리 ③에만 등장하는 ‘경중’ 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진한조만 다시 살펴보자.

진한조의 전성시기 호구 정보는 『삼국유사』 처용랑망해사조와 염불사조, 그리고 『삼국사기』 헌강왕 6년 기사에 매우 흡사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 G-1 ㉗新羅全盛之時 ㉘京中 ㉙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㉚一千三百六  
土坊 ㉛五十五里 ㉜三十五金入宅 … ㉝又四節遊宅 … ㉞第四十九  
憲康大王代 城中無一草屋 接角連牆, 歌吹滿路, 晝夜不絕.<sup>49)</sup>
- G-2 南山東麓有避里村, 村有寺, 因名避里寺. 寺有異僧, 不言名氏, 常念  
彌陀, 聲聞于城中三百六十坊 十七萬戶, 無不聞聲.<sup>50)</sup>
- G-3 第四十九憲康大王之代, 自京師至於海內, 比屋連牆無一草屋, 笙歌

不絕道路, 風雨調於四時.<sup>51)</sup>

G-4 王與左右登月上樓四望, 京都民屋相屬, 歌吹連聲. 王顧謂侍中敏恭曰, 孤聞今之民間, 覆屋以瓦不以茅, 炊飯以炭不以薪, 有是耶.<sup>52)</sup>

G-1~4의 비슷한 부분을 묶어 <표 2, 3>을 작성해 보았다. G-1의 ㉔는 삼국 호구 정보 기사에 일괄적으로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 하겠다. ㉔ · ㉕ · ㉖의 경우 G-2에서 ‘城中 三百六十坊 十七萬戶’라는 비슷한 기사로 재등장한다. G-2 엽불사조의 戶 수치가 조금 단순화된 것과 坊의 수치가 다른 것은 G-2의 원형이 G-1 진한조였으며, 이를 피은편에서 다시 사용하는 과정 중에 생긴 오류로 볼 수 있다. ㉕는 왕도의 구획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삼국사기』 지리지의 ‘王都 … 三十五里 六部’<sup>53)</sup>와 수치가 차이가 있는 것을 빼면 비슷한 형태의 자료가 존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㉖와 ㉗ 역시 왕도 내에 있는 주택 설명으로, 다

<표 2> 『삼국유사』 진한조와 엽불사조의 비교

	시기	범위	戶	坊	里	金入宅 및 四節遊宅
G-1 진한조	新羅 全盛之時	京中	17만 8,936戶	1,360坊	55里	○
G-2 엽불사조	×	城中	17만 戶	360坊	×	×

<표 3> 『삼국유사』 진한조와 처용랑망해사조, 『삼국사기』 현강왕조의 비교

	시기	범위	세부 풍경
G-1 진한조	49대 현강왕	城中	無一草屋, 接角連牆
G-3 처용랑망해사조	49대 현강대왕	自京師至於海內	比屋連牆無一草屋
G-4 『삼국유사』 현강왕조	현강왕 6년	京都	民屋相屬 … 覆屋以瓦不以茅

49) 『삼국유사』 권1, 기이, 진한

50) 『삼국유사』 권5, 피은, 엽불사

51) 『삼국유사』 권2, 기이, 처용랑망해사

52)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현강왕

53)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신라

른 기록에서 몇 개의 편린만 찾아지는 것에 비해 『삼국유사』에서는 완전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㉞는 <표 3>과 같이 3곳에서 공히 등장하고 있다. 이는 전성시기 호구 정보의 원형과는 무관한 경주의 풍경에 대한 내용으로 보아야 옳다.

또한 <표 2>를 보면 진한조에서는 정보의 범위를 ‘京中’이라 하였고 염불사조에서는 ‘城中’이라 하고 있는 반면에 <표 3>의 경우 진한조에서는 ‘城中’, 처용랑망해사조에서는 ‘京師부터 海內까지’, 『삼국사기』에서는 ‘京都’라고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표-3> 처용랑망해사조에서 그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때 수도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精緻하지 못하고 매우 혼동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sup>54)</sup> 이러한 용어의 혼용은 진한조의 자료 속에 있는 ‘京中’의 범위 및 기사의 정확성에 있어 의심을 자아낸다. 다만 본고에서는 수도 범위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상 진한조를 살펴본바 얼핏 신라의 수도, 즉 경주를 범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 과연 17만 호, 9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지와 그 시기가 8세기인지 현강왕대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경주 시내의 호구·인구를 17만 호, 90여만 명으로 보는 것

54) 고대 국가에서 수도를 지칭하는 용어가 매우 다양하고 또한 각 용어마다 그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다뤄졌다. 수도의 명칭과 범위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李鍾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姜鍾元, 1992 「新羅 王京의 形成過程」 『百濟研究』23; 金鎬詳, 2001 「新羅王京研究(I)」 『慶州史學』20; 李起鳳, 2002 『新羅 王京의 範圍와 區域에 對한 地理的 研究』,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李泳鎬, 2005 「7세기 新羅 王京의 變化」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26; 김용성, 2006 「신라 왕도의 범위에 대하여」 『新羅文化』28; 황보 은숙, 2008 「신라왕경의 도시적 발달」 『新羅文化』32; 전덕재, 2009 앞의 책 등.

은 분명 무리가 많이 따르지만, 그렇다고 진한조만 戶를 口의 誤記로 보는 것도 역시 동의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③ 역시 ①·②와 같은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문장을 다시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①·②의 구조로 ③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㉑ 新羅全盛之時 十七萬八千九百三十六戶

㉒ 京中 一千三百六十坊 五十五里 三十五金入宅 … 又四節遊宅 … 第四十九憲康大王代 城中無一草屋 …

G-1에서 ㉑와 ㉒의 위치를 바꾸면 고구려와 변한백제조의 호구 정보와 동일한 형식인 ㉑가 된다. 또한 ㉒처럼 ‘경중’의 뒤에 왕경의 도시 구획과 관련된 坊·里 정보가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필자는 일연이 ㉑의 호구 정보와 함께 ㉒와 같은 다양한 통일신라의 수도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진한조 기술시 고구려 및 변한백제조와 일관된 형태의 ㉑를 기술한 후, 통일신라의 수도에 관련 자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해 ㉑의 뒤에 ㉒를 추가하였다고 보는데, 이 와중에 ㉑와 ㉒의 정보에 혼란이 오게 되었고, 이런 뒤섞인 정보가 엽불사조에 그대로 재사용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진한조의 전성시기 호구 정보 역시 고구려·변한백제조와 마찬가지로 삼국시기 어느 무렵에 작성된 국가를 범위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sup>59)</sup>

55) 鄭求福(1987 「三國遺事の 史學史的 考察」 『三國遺事の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p.14) 역시 진한조 전성시기 京中 호구 정보를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호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 IV. 호구 정보 추론에 대한 적합성

##### 1. 호구 정보의 생성 요건과 시간 범주

앞서 『삼국유사』에 보이는 삼국의 호구 정보가 삼국의 멸망기가 아닌 초·중반의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사료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가한 것이라 이를 증명해 내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여기에서는 호구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고, 그에 적합한 시간 범주를 정해보겠다. 이를 위해 호구 자료의 기록 및 유지의 차원에서 역사서 편찬 시기를, 호구 자료의 생성 차원에서 율령의 반포시기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대 국가에서 조세 수취 및 부역 징수 등을 위한 호구 조사는 필수적이었다. 조사한 호구수는 기록에 남았을 것이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전성시기 ‘호구’ 정보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삼국유사』만의 독특한 정보이다. 호구 정보의 원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다양한 ‘古記’ 류 사서를 들 수 있는데,<sup>56)</sup> 문제는 『삼국유사』가 고기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삼국사기』 찬자가 중국사서와 고기의 내용이 상충할 때 예외 없이 고기에 경도되고 있는 반면, 『삼국유사』의 찬자는 『삼국사기』나 중국 측 자료를 근거로 고기의 내용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편향적인 현상이 발견된다.<sup>57)</sup> 만일 일연이 고기를 통해 획득한 『삼국유사』의 호구정보가 『삼국사기』와 동일한 시기의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많은 용례처럼 『삼국사기』와의 대교를 통해 『삼국사기』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일연이 취한 고기의 전성시기 호구 정보가 『삼국사기』의 고구려·백제 멸망기 호구 정보와 전혀 다른 시간

56) 李康來, 1996 「三國遺事 引用 古記의 性格」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史, pp.182~183.

57) 李康來, 2005(a) 앞의 논문, pp.300~307 ; 이강래, 2005(b) 앞의 논문, p.83.

범주의 자료일 가능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일연이 참고한 고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힐 수 없지만, 『삼국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삼국의 역사서 편찬 사실은 조그만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백제는 근초고왕(346~375)대에 『書記』를 편찬하였으며,<sup>58)</sup> 고구려는 영양왕 11년(600)에 『留記』 100권을 요약한 『新集』을,<sup>59)</sup> 신라는 진흥왕 6년(545)에 『國史』를<sup>60)</sup> 각각 편찬하였다. 물론 역사서의 편찬 이전에 목간 등을 활용한 자료가 존재하였고, 고구려의 경우 『신집』 이전에 100권에 달하는 『유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은 건국 초기의 정보부터 실려 있었을 것이며,<sup>61)</sup> 주된 내용은 왕실과 귀족의 시조전승, 건국과정과 국가 발전과정, 대외정복활동 등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다.<sup>62)</sup> 이러한 역사서 편찬 사실은 우선 삼국 초·중기의 호구 정보가 과연 존재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이다.

또한 삼국의 역사 편찬 작업은 당연히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며, 추후 지속적인 역사편찬의 전통을 이어갔을 것이다.<sup>63)</sup> 어떤 자료가

58)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59)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60)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61) 趙仁成, 1985 「三國 및 統一新羅의 歷史敘述」 『韓國史學史의 研究』, 乙酉文化社, p.13. 한편 『유기』가 3세기 이전에 편찬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계루부 왕실이 아닌 연노부를 비롯한 5부 중심으로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유포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朴成熙, 1999 「古代 三國의 史書 편찬에 대한 재검토」 『震檀學報』88, pp.26~31). 정치적 변화에 관심을 둔 박성희의 판단은 일견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유기』의 편찬자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그 내용 역시 한 번에 완성된 것으로 볼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유기』 100권은 『신집』이 편찬될 당시까지 꾸준히 만들어져 가던 자료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호구 정보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감되거나 변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62) 朴成熙, 1999 앞의 논문, p.41.

고려시대까지 남아 사서 편찬에 이용되었는지 알 길은 요원하지만, 현존하지 않는 각종 고기류의 자료가 당시에 널리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삼국이 직접 남긴 자료, 혹은 그 자료를 모아 만든 2차 자료 등을 통해 일연이 『삼국유사』에 호구 정보를 삽입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기록물의 존재 가능성과 관련하여 역사서 편찬이 중요하다면, 호구 자료의 생성 시기를 추정하는 데 있어 율령의 반포 또한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율령의 반포는 곧 국가 권력에 의한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의 성립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국가지배의 기초단위인 호구에 대한 조사 및 조세 징수체계가 틀을 갖추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척도이기도 하다.<sup>64)</sup> 『삼국유사』 및 『삼국사기』의 호구 정보 역시 이러한 체계 안에서 정리된 정보일 것이기에, 사서의 편찬 시기와 함께 율령 반포의 시기를 두루 검토하면 어느 정도 호구 정보가 작성된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삼국은 백제 근초고왕(346~375)<sup>65)</sup>, 고구려 소수림왕 3년(373)<sup>66)</sup>, 신라 법흥왕 7년(520)<sup>67)</sup>에 각각 율령을 반포한다. 율령에 관한 자료 역시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대략적으로 고구려의 경우 非형별적인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68)</sup> 신라의 율령 또한 비슷한 성향을 보일

63) 일례로 『日本書紀』에서 『百濟記』·『百濟本記』·『百濟新撰』등의 백제 관련 사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인들이 지속적으로 역사편찬 전통을 이어갔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부식, 이강래 역, 1998 『삼국사기』Ⅱ, 한길사, pp.508~509).

64) 金琪燮, 2007 『韓國 古代·中世 戶等制 研究』, 혜안, p.25.

65)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고이왕조에 백제의 율령 반포 기록이 등장하지만 학계에서는 근초고왕 무렵으로 보고 있다(盧重國, 1986 「百濟律令에 대하여」 『百濟研究』17, pp.57~59).

66)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소수림왕

6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법흥왕

68) 盧重國, 1979 「高句麗律令에 관한 一試論」 『東方學志』21, p.95.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율령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긴 어렵지만 울진봉평 신라비의 奴人法 등을 보았을 때, 대복속민 시책과 같은 법이 있었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sup>69)</sup> 율령 반포와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는 지방에 대한 강력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호구 조사의 범위가 지방까지로 넓어지고 그 정확성도 한층 진일보 했을 것이기에 이 당시의 호구 기록이 『삼국유사』에 담겨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상 호구 정보의 생성 요건 등을 통해 『삼국유사』에 실린 독특한 호구정보가 삼국에서 편찬한 역사서에 실려 고기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율령의 반포가 국가 단위의 호구 조사가 실시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참고한 결과, 필자는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4세기 무렵, 신라는 6세기 무렵이 『삼국유사』 호구 정보가 담고 있는 시간 범주라고 판단한다.<sup>70)</sup>

## 2. 호구 정보의 적합성

『삼국유사』의 호구 정보를 4세기 또는 6세기의 것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시기에 『삼국유사』에 기록된 정도의 호구가 존재 가능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대의 호구 정보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백제나 신라에 비해 그나마 그 정보의 조각이 많이 남아 있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69) 朱甫暉, 1989 「蔚珍鳳坪新羅碑와 法興王代 律令」 『韓國古代史研究』2, pp. 118~121.

70) 필자의 이러한 추론에 과연 이때가 진정한 삼국의 전성시기-특히 최전성시기-인지에 대한 판단은 배제되어 있다. 전성시기 용례의 검토에서 언급하였듯이 역사서의 편찬과 율령의 반포 등으로 인한 왕권강화, 영토 확장 사업의 시작 역시 그 단계에서의 전성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대 삼국의 호구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등장하는데, 국가 건립 초기와 전성기 그리고 멸망기가 그것이다. 건국 초기의 호구 정보는 주로 『삼국지』의 것, 멸망기는 『삼국사기』, 전성기는 『삼국유사』의 것을 말한다.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건국 초기 호구 수치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로 보는 입장이다. 반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멸망기의 정보는 국가의 패망과 함께 새로운 국가에 편입되면서 기존 호구의 재정비와 함께 조사되어 남겨졌을 것이기에 좀 더 신빙성이 있겠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전성기의 경우는 확실히 무슨 까닭으로 작성하여 남긴 기록인지 파악하기 난해하였다.

다시 『삼국유사』의 호구 규모에 대한 가능성 검토를 위해 고구려 호구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H-1 환도의 아래에 도읍하였는데 면적은 사방 2천 리이며, 호수는 3만 이다.<sup>71)</sup>

H-2 (李敖가 말하기를) 民戶의 수는 前魏 때보다 3배나 많아졌다.<sup>72)</sup>

H-3 지난 날 5부, 176성, 69만여 호가 있었다.<sup>73)</sup> (혹 69만 7천 호)<sup>74)</sup>

『삼국유사』를 제외하고 고구려 호구를 파악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H-1~3의 사료들이다. H-1의 『삼국지』는 3세기 중후반 무렵에

71)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 고구려전

72) 이오가 고구려에 들어온 것은 장수왕 23년이다(『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위서』 권100, 열전88, 고구려

『북사』 권94, 열전82, 고구려

73)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10, 보장왕下

74) 『구당서』 권199 上, 열전149上, 동이 고려

陳壽가 편찬한 것으로 魚豢의 『위략』을 많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75)</sup> 두 사서 모두 편찬 년대가晉 太康년간(280~289)로 추정되고 있다. 고구려 호수가 3만 호였다는 H-1 기록은 H-2와 함께 거론되면서 장수왕대 고구려 호수가 9만 호였다는 근거로 사용된다. H-3은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고구려 멸망기 호구 정보인데, 이를 부정하는 쪽에서는 H-1~2를 통해 장수왕대 호구를 9만 호로 상정하고 이것이 불과 2세기만에 69만여 호로 증가하는 것은 상식적인 인구증가율을 벗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여기서 필자는 『삼국지』와 『삼국유사』 그리고 『삼국사기』의 호구 정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록에 적힌 호구수를 이용하여 순수 인구증가율의 잣대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현대처럼 조사 대상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고정되어 정확한 인구센서스가 가능한 조건에서는 인구증가율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고대 삼국처럼 강역과 조사 대상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한계를 노출하게 된다. 즉 『삼국지』 단계의 호구 정보가 가지고 있는 범위와 한계를 도외시한 채 ‘고구려 3만→9만→69만은 불가능’하다거나, ‘백제의 10만→74만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인구증가율 공식에 맞춰 7세기의 삼국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는 각 시기별 강역의 확대 혹은 축소, 지방통치체제의 변화 등으로 인한 변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삼국지』는 한국 고대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H의 기사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많다. 같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다음의 기사들에 주목해 보자.

75) 『삼국지』의 주요 근거인 ‘위략’이 어환의 『위략』에 앞서서 존재하였던 가칭 ‘原위략’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全海宗, 1980 『東夷傳의 文獻의 研究 -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 記事의 檢討-』, 一潮閣, pp.39~46).

I-1 (夫餘傳) 국토 면적은 사방 2천 리이며, 호수는 8만이다.

I-2 (東沃沮傳) 호수는 5천 호이다.

I-3 (濊傳) 오늘날 朝鮮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고, 호수는 2만이다.

I-4 (高句麗傳) 사람들은 힘이 세고 전투에 익숙하여, 옥저와 동예를 모두 복속시켰다.

I-5 (高句麗傳) 발기는 형이면서도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연노부의 대가와 함께 각기 하호 3만 명을 이끌고[各將下戶三萬餘口] 공손강에게 투항하였다가 돌아와서 비류수 유역에 옮겨 살았다.

I-1~3에 각 국가의 호구 정보가 등장하는데, 이를 『삼국지』의 편찬년도에 맞춰 전부 3세기 무렵의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sup>76)</sup> 부여와 동옥저, 그리고 예는 I-4처럼 훗날 모두 고구려에 복속되는 운명에 처하는데, I-1~3의 정보 역시 오차가 많겠지만 이를 믿는다는 가정 하에 이 호수만 더하여도 총 10만 5천 호에 달한다. 즉 고구려 3만 호 속에는 I-1~3의 호수가 빠져 있는데, 건국 직후부터 시작된 정복 사업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큰 격차가 벌어졌을 것이다. 고구려가 초기에 정복지역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지역 수장을 통한 간접지배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sup>77)</sup> 『삼국지』의 고구려 호구 정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76) 일례로 부여의 경우 기원전 82년~기원후 2년 무렵의 정보로 알려져 있다(金三守, 1968 「古代夫餘의 社會經濟構成과 土地私有的 存在形態」 『淑明女子大學教論文集』7, pp.16~18). 다른 국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구 정보를 3세기 정보로 보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 물론 이것이 『삼국지』의 모든 정보가 이른 시기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77) 고구려는 3세기까지 다양한 지배 방식을 취하였다. 먼저 지역 전체와 재지배층을 보존시키는 대신 공납물만 바치게 하는 거의 완전한 자치 보장 방식이 있다. 둘째, 지역을 부분적으로 재편해 지배하는 경우로 앞선 방식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정복 지역을 고구려인에게 식읍으로 주고, 식읍

I-5를 보면 3만 호 정보에 더욱 의구심을 갖게 한다. I-5는 『삼국지』 및 『삼국사기』 고국천왕조에 함께 실려 있는 기사다.<sup>78)</sup> 『삼국지』가 전하는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발기와 연노부 대가가 각각 하호 3만 명, 총 6만 명을 이끌었다는 것은 고구려 전체가 3만 호 뿐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왕위 쟁탈에서 패배한 발기가 3만 명의 하호를 이끌었다면 실제 왕위를 쟁취한 이이모[산상왕]은 최소한 발기보다는 많거나 동등한 수준의 하호를 거느렸다고 보아야 한다. I-5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고구려 인구는 다음과 같다.

- ㉠ 발기와 연노부 하호 6만 명
- ㉡ 이이모의 하호 최소 3만 명 이상
- ㉢ 나머지 4부 하호 12만 명
- ㉣ 기타 고위 지배층 및 좌식자, 노예 계층 등(추정 불가)

고구려 5부에 한정하여도 대략 21만여 명(5만여 호)에 이른다. 여기에 추산이 불가능한 ㉣의 인원을 더하면 3세기 초 고구려의 인구는 『삼국지』의 그것보다 많은 수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장수왕대 3배가 늘어 호구가 9만에 이르렀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고구려는 주변국에 대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는데, 낙랑과 대방 축출은 상당한 호구 유입을 가져왔을 것이다. 고구려가 점령한 낙랑·대방 지역의 직접적인 인구 자료는 없지만, 이에 대한 대략의 추정을

---

주로 하여금 그 안에서 토지세와 호세, 부역 등을 거두도록 하는 방식이다(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pp.136~148).

78) 『삼국지』의 내용은 진수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발기의 반발 사실은 고국천왕 때의 일이 아니라 고국천왕 사후 그 아우들에 관한 내용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산상왕조에 발기의 기사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낙랑목간과 중국의 호구 조사 자료가 남아 있다. 다음의 <표 4>를 살펴보자.

<표 4> 初元4年 樂浪戶口簿과 『한서』·『후한서』의 幽州管内 호구 정보 (\*은 교정 수치)

冊名	郡名	戶數	人口	戶當人口	비고(원본내용)
초원4년 낙랑호구부 <sup>79)</sup> (BC 45년)	낙랑군	43,835	280,361	6.39	
『한서』 지리지 (AD 2년)	현도군	45,006	221,845	4.92	
	낙랑군	62,812	406,749	6.47	
『후한서』 군국지 (AD 140년)	현도군	* 7,594	43,163	5.68	* 1,594戶
	낙랑군	61,492	257,050	4.18	

<표 4>는 기원전후 낙랑군과 현도군의 호구 조사 정보이다. 낙랑군은 기원전 4만여 호에서 2세기 무렵 6만여 호를 유지할 정도로 그 세력을 키워갔는데, 4세기 초 미천왕에 의해 축출될 때<sup>80)</sup> 이 세력의 대부분은 고구려에 흡수되었을 것이다. 반면 현도군은 4만 5천여 호를 유지하던 군세가 2세기에 들어 7천여 호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세기 중엽 태조왕의 현도군을 비롯한 한사군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가 있었는데,<sup>81)</sup> 이 와중에 현도군의 세력이 급감하게 된다. 이때 지배층을 제외한 원주토착민 세력은 고지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인바, 이들 역시 고구려 등지로 유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사군 지역에 대한 정벌을 통해 고구려가 획득 가능한 호구는 대략 10여만 호 내외가 될 것이다. 위에서 발기의 기사를 통해 추정한 고구려 5만여 호와 한사군 지역 10여만 호, 그리고 동옥저와 예의 2만 5천 호를 더하면 4세기 초 고구려의 호구는 대략 17만 호를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호구수의 추정이 불가능했

79) 尹龍九(2009 「平壤出土「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研究」『木簡과 文字』3)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80)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5, 미천왕

81) 『삼국사기』 권15, 고구려본기3, 태조대왕

던 세력과 부여의 일부 세력이 더하여지면 이 무렵 고구려가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21만 508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필자는 고구려의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삼국유사』의 ‘고구려 전성시기’를 4세기 중후반 소수림왕대로 추정한다. 앞서 살폈던 울령의 반포, 호구수의 적합성 이외에도 승려 신분인 일연이 중요하게 생각했을 불교의 전파 역시 또 다른 전성시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82)</sup>

장수왕대의 민호가 전보다 3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인구증가율에 의한 자연 증대가 아니라 고구려의 여러 제반 조건이 좋아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대를 거치면서 자연증가·정복·지방 지배 강화 및 호구제도 정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욱 많은 민호의 확장을 가져왔고, 이것이 바로 전 시대보다 3배나 늘었다고 이오에게 자랑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고 하겠다.<sup>83)</sup> 필자는 고구려의 호구가 4세기 초 21만 → 7세기 69만 정도의 발전 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충분히 용납할 만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증언하지만 4세기에서 7세기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21만 → 69만은 오로지 자연인구증가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전술하였듯이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호구의 새로운 등재와 정복지 확대 및 지배방식 변

82) 일연은 『삼국유사』 흥법편에서 불교를 통한 국가의 흥망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절반가량을 불교관련 이야기로 채웠던 일연이라면 삼국의 불교 도입이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83) 李敖가 고구려 민호 3배 증가의 시기 기준을 前魏 시대로 맞추었다고 해서 장수왕대 9만 호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오가 『삼국지』의 3만 호 기록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추정 가능하지만, 장수왕대 고구려의 민호를 9만 호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3배나 많아졌다”는 내용은 필시 고구려에서 이오에게 제공한 것일 터, 고구려는 『삼국지』 정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이 예전 파악했던 호구에 비해 대략 3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렸다고 봐야 한다. 훗날 이오가 귀국 후 보고를 함에 있어서 중국 측이 가지고 있는 고구려의 호구 정보가 『삼국지』에 등장하는 까닭으로 ‘前魏’ 시대와 비교를 한 것으로 보인다.

화라는 변수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상 『삼국유사』의 전성시기 호구 정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범주 및 호구 정보의 적합성을 고구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에 비해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빈약한 관계로 세밀한 검토가 불가능함이 아쉽지만, 추후 좀 더 많은 검증 자료의 발굴을 통해서 논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

## V. 맺음말

『삼국지』 및 『삼국사기』의 호구 정보에 비해 너무나 독특한 『삼국유사』의 전성시기 호구 기사는 호구·인구사 연구를 참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만든 주된 요인이었다. 연구자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선택하게끔 고뇌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삼국사기』의 정보를 취하는 경우, 『삼국유사』의 정보를 취하는 경우, 『삼국사기』의 戶를 口로 보는 경우, 『삼국유사』 진한조의 기사만 戶를 口로 보는 경우 등 이루 셀 수 없이 다양한 접근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전에 『삼국사기』의 정보를 이용하여 고구려 인구 규모를 추정하면서 『삼국유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새로운 접근을 위한 시론적 검토를 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필자의 주된 논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변한백제·진한조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삼국유사』의 전성시기 호구 기사는 흔히 멸망기로 칭하는 시기와 다른 시간 범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관련 기사의 문장 형식이 일연에 의해 동일한 형태로 기술되었다는 점을 통해 진한조 기사의 공간적 범위를 ‘京中’이 아닌 신라 전체의 범위로 인식하였다. 셋째, 역사서 편찬과 율령 반

포, 불교의 전파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삼국유사』 호구 정보의 작성 시기를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신라는 6세기 무렵으로 추정하였다. 넷째, 『삼국유사』 호구 정보가 필자의 추론 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삼국지』 등 고구려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를 하였다. 아울러 단순히 인구증가율을 통해 호구 문제에 접근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하지만 부족한 정보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까닭에 필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논리적 비약이 들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시론적 검토가 『삼국유사』 호구 정보의 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가져본다.

투고일 : 2009.10.7      심사개시일 : 2009.11.20      심사완료일 : 2009.12.11

## 참고문헌

- 『三國遺事』, 『三國史記』, 『三國志』, 『魏書』, 『北史』, 『南史』, 『舊唐書』, 『新唐書』,
- 姜鍾元, 1992 「新羅 王京의 形成過程」 『百濟研究』23.
- 耿鐵華 지음, 朴倉培 번역, 2004 「고구려 유민에 대한 당나라의 관리」 『중국인이 쓴 高句麗史』 上, 고구려연구재단.
- 金起燮, 1997 「4세기경 百濟의 人口와 住民構成」 『京畿史論』創刊號.
- 金琪燮, 2007 『韓國 古代·中世 戶等制 研究』, 혜안.
- 金杜珍, 2000 「三國遺事の 體制와 내용」 『韓國學論叢』23.
- 金炳坤, 2005 「崔致遠의 三韓觀에 대한 認識과 評價」 『韓國古代史研究』40.
- 金三守, 1968 「古代夫餘의 社會經濟構成과 土地私有의 存在形態」 『淑明女子大學敎 論文集』7.
- 金相鉉, 1993 「三國遺事の 歷史方法論的 考察」 『東洋學』23.
- 金相鉉, 2003 「三國遺事論」 『강좌 한국고대사』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金鎬詳, 2001 「新羅王京研究(I)」 『慶州史學』20.
- 김교년, 2003 「신라 왕경의 발굴조사와 성과」 『신라왕경조사의 성과와 의의 -문화재 연구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12, 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김성수, 2004 「高句麗와 古朝鮮의 正體性 확인을 위한 『三國遺事』 紀異篇의 書誌的 分析」 『書誌學研究』29.
- 김용성, 2006 「신라 왕도의 범위에 대하여」 『新羅文化』28.
- 김창석, 1997 「7세기 신라에 의한 경제통합과 토지제도 개편」 『역사와 현실』23.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 盧重國, 1979 「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 『東方學志』21.
- 盧重國, 1986 「百濟律令에 대하여」 『百濟研究』17.
- 馬大正·楊保隆·李大龍·勸赫秀·華立 공저, 2001 『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書』, 黑龍江教育出版社.
- 朴南守, 2004 「三國의 經濟와 交易活動」 『新羅文化』24.
- 朴成熙, 1999 「古代 三國의 史書 편찬에 대한 재검토」 『震檀學報』88.
- 박진태·정호완·이동근·김복순·이강옥·조수동 공저, 2002 「『삼국유사』의 편찬

- 의도」『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孫進己, 2004 「東北亞 각국의 高句麗 土地·人民·文化에 대한 繼承」『北方史論叢』  
창간호.
- 신형식, 2003 『高句麗史』,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오장환, 1958 「신라장적에서 본 9세기 전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형편에 대한 몇 가  
지 문제」『역사과학』5.
- 尹龍九, 2009 「平壤出土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 研究」『木簡과 文字』3.
- 尹鍾周, 1985 「우리나라 古代人口에 관한 少考」『韓國人口學會誌』8-2.
- 李康來, 1996 「三國遺事 引用 古記의 性格」『三國史記 典據論』, 民族史.
- 이강래, 2005 「『삼국유사』 기이편의 자료 수용 방식」『『삼국유사』 기이편의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 李康來, 2005 「『삼국유사』의 사서적 성격」『韓國古代史研究』40.
- 李基白, 1984 「三國遺事 紀異篇의 考察」『新羅文化』1.
- 李起鳳, 2002 「新羅 王京의 範圍와 區域에 대한 地理的 研究」,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李道學, 2005 「崔致遠의 高句麗 認識」『韓國思想史學』24.
- 李丙燾, 1984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 李泳鎬, 2005 「7세기 新羅 王京의 變化」『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26.
- 李玉, 1984 『高句麗 民族形成과 社會』, 敎保文庫.
- 李玉, 1997 「高句麗의 人口」『京畿史論』創刊號.
- 이옥·주용립·지병목 공저, 2000 『고구려연구』, 주류성.
- 李鍾旭, 1982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 전덕재, 2009 『신라 왕경의 역사』, 새문사.
- 全海宗, 1980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 記事의 檢討  
-」, 一潮閣.
- 鄭求福, 1987 「三國遺事의 史學史的 考察」『三國遺事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 정병준, 2008 「고구려 유민 연구」『중국학계의 북방민족·국가 연구』, 동북아역사  
재단.
- 정찬영, 1989 「고구려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대하여」『삼국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일송정.

- 조상현, 2006 「高句麗의 人口에 대한 시론」 『歷史學研究』28.
- 趙仁成, 1985 「三國 및 統一新羅의 歷史敍述」 『韓國史學史의 研究』, 乙酉文化社.
- 朱甫噉, 1989 「蔚珍鳳坪新羅碑와 法興王代 律令」 『韓國古代史研究』2.
- 채희국, 1989 「삼국 시기의 사회 - 경제 구성을 해명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삼국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일송정.
- 황보 은숙, 2008 「신라왕경의 도시적 발달」 『新羅文化』32.

## Abstract

An article examination on ‘The number of houses and families in the heyday’ of the Three Kingdoms in 『Samguk-Yusa』

Cho, Sang-Hyun

This manuscript purposes to examine records in 『Samguk-Yusa』 from the different angle that is one of the two books, 『Samguk-Sagi』 and 『Samguk-Yusa』 that are used the most essentially in presuming the ancient population of Korea. While the existing demographic history research has a tendency to argue by choosing only one records from two history books, the author states frankly that both two materials should be used for examining the ancient population.

In Chapter II it is conducted to examine the construction of the items related with the Three Kingdoms such as Koguryo, Pyonhan-Baekje, Jinhan Articles in 『Samguk-Yusa』 and the result of examination is confirming that contents of these items emphasizes the explanation of the national origin virtually and that three items are exactly alike as the construction forms. In addition there is an attempt to the presumption of The Three Kingdoms’ heyday in Chapter III, and the fact is checked that the heyday of the Three Kingdoms in 『Samguk-Yusa』 is different period from the Three Kingdoms’ last stage so called the greatest prosperity time or collapse time usually. The phrase ‘The heyday in the capital(全盛時期 京中)’ in Jinhan Articles has merely the trouble to interpret but it can be understood as the identical interpretation method of Koguryo Articles and Pyonhan-Baekje Articles so it is interpreted as ‘There are 178,936 houses at the heyday of Silla and there are 1,360 houses in capital~’ in orderly manner that means the spatial bounds of the number of houses and families is recognized not ‘in the capital’ but all bounds of the Silla.

In Chapter IV, a point of the time is presumed when the information about the number of houses and families at the heyday in 『Samguk-Yusa』 was written out and framing time factors as important basic point is the compilation of history book, the

law distribution and the spread of Buddhism. As the result presumption is that the information about Koguryo and Baekje around 4th century A.D. and Silla around 6th century A.D. may be recorded in 『Samguk-Yusa』. The author has examined whether the presumption through Koguryo with a lot of existing records relatively is suitable or not and has concluded that there is no remarkable contrast between the facts that the number of houses and families in Koguryo around 4th century is about 170,000 through 『Samgukji』 and other historical materials and is about 210,000 in 『Samguk-Yusa』. In fact considering the diverse variables, it is not impossible numerical value that the number of 690,000 houses in collapse time of Koguryo in 『Samguk-Sagi』 as if 170,000 houses was in Koguryo around 4th century in 『Samguk-Yusa』.

Keyword : 『Samguk-Yusa』, 『Samgukji』, Jinhan Articles, the Three Kingdoms, number of houses and families, population, The Three Kingdoms' heyday